

제도변화 · 개혁 상당한 진통 따를 듯

태고종 6월 10일 종단제도개혁안 공청회 개최

태고종이 종단제도개혁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가 종도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종단제도변화와 개혁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인공)은 6월 10일 한국불교전승관에서 종단제도개혁안공청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태고종 시·도교구원장, 종단 각급 기관장 등 300여 대중이 참석해 종도들의 종단제도개혁안에 관한 강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제11회 중앙총회에서 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종단제도개혁안을 마련한 만큼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지혜를 모아 올해 안으로 제도개혁을 완료하고 종단중흥발전을 이룩하자”고 당부했다.

태고종 제도개혁위원장 영우 스님은 개혁안 취지에서 “대승교화종단 태고종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혁신적으로 개혁해나가기 바란다” 이어 스님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태고종은 이대로는 안된다. 변해야 산다. 종단 경사비가 매월 1억여 원인 상황이지만 분담금은 7000여 종도 중 1200여 종도만이 납부하고 있다. 기존 인식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안은 종단재산 공공성을 확보하고, 종단운영과 사업추진에 필



태고종 총무원을 6월 10일 한국불교전승관에서 종단제도개혁안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줄을 제도개혁위원 스님들, 뒷줄 왼쪽에서 두번째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제도적으로 규정했다. 보살승으로서의 승려 양성과 재교육 및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사업 및 정지구현을 위한 사회참여 등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화 수행중점 전략 등을 담았다.

이를 위해 유명무실한 종단 기구들을 축소정비하고, 행정조직을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 3원 체제로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포교적 교육제도 확립 △사찰재산관리에 있어 공할과 사찰사안 등 2원 관리제도 적용 △교역 분담금 신설 △경제적 합리화 △종단 임직원 업무전문성 제고 등을 구체적 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개혁안은 발표가 진행 중에도 곳곳에서 반발에 부딪혔다. 서울 원각사 주지 대각 스님은 “개혁안 취지에서 ‘소승적 비구불교는 자기완성을 위한 수행을 근본으로 하고 대승적 보살불교는 인류완성을 위한 전법을 위주로 한다’고 서술한 것은 우리 종단이 마치 수행을 하지 않는 종단이라는 어감을 준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위원장님이 종도의 종단 운영 참여가 결여됐다고 했는데 종단 운영이 청렴·투명했다면 종도들이 참여하지 않을 리 없다. 종단의 위장자들이 종도들의 마음을 반시킨 것이 제일 원인이다”라고 반

박했다.

제주총무원장 법담 스님은 “분담금 납부자가 1200명인데 개혁안대로라면 총무원장 선거인단이 24명밖에 안된다”면서 “총무원장 선거를 완전히 선제로 가던지 적어도 종도 20명당 1명씩은 선거인단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남부총무원장 양산 스님은 “개혁안에서 1개 시·도에 1개 지방총무원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안은 기존의 총무원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제도개혁위원회는 “현재 총무원은 몇몇 마음 맞는 스님끼리 총무원을 꾸리는 등 분란의 소지가 많아 지방총무원의 대외적인 역량 등을 고려해 행정구역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라 해명했지만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날 공청회에서 집행부는 “서면으로 종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후속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과 제도개혁위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이 끝나면 최종안을 만들어 법률자문 후 부규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총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종단개혁안 마련에 앞서 종도의 신뢰를 잃은 총무원의 신뢰부터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조종섭 기자 celana@buddhapia.com

“제방과 더욱 소통해야”

조계종 교육원, 선·울장전문대학원 세미나 개최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6월 10·11일 각각 선전문대학원과 울장전문대학원 설립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인사말에서 “3500여 종도가 전문교육 대상자이다. 선·울장·초기불전·한문 등 전문대학원 특성화·전문화된 전문대학원을 설립해 2011년 첫 시행 예정이다. 세미나 후에도 지속적으로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10일 선전문대학원 세미나에서 “선전문대학원의 교과영역은 선사상, 선의 역사, 선전, 선문화·응용, 선수행 5개 영역을 동일하게 다뤘다”면서 “교과목에 현장학습 등 선실수를 포함해 생활선도 비중 있게 다루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선 전문대학원은 2년 4학기 과정, 20명 정원으로 10개 과목 30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울장 전문대학원은 2년 4학기 과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이 선전문대학원과 울장전문대학원 설립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정, 20명 정원으로 8과목 32학점을 이수한다.

원철 스님은 11일 울장전문대학원 세미나에서 “<사분율> 중심의 초기불교윤리, <법방경> 중심의 대승불교윤리, 청규 및 중현종법을 통한 현대적 관점의 불교윤리연구를 교과목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교육원의 두 전문대학원 설립안에 세미나에 참석한 100여 스님들은 여러 의견을 내놓았다. 공통된 지적은 “일선 교육기관 관계자 및 학인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

학인인 원정 스님은 10일 세미나에서 “급급자 입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수요자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송광사 송광유원 울주 지현 스님은 11일 지정토론을 통해 “지방에서는 교육원의 교육개선에 불신하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전문대학원 설립에 앞서 교육원과 종단 내 일선교육 종사자의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도사 영축유원 전제사 해남 스님은 “국가제도 교육기관 명칭인 대학원 호칭을 붙여 굳이 다른 국가공인기관과 비교되며 현대 받을 이유가 있느냐”며 명칭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조종섭 · 이은정 기자

“봉은사 걱정 안해도 돼”

명진 스님, 총무원과 협의 사실 공식화

“봉은사 직영전환 철회와 관련한 협의가 총무원과 진행 중이다.” “봉은사의 어려웠던 터널 같은 일들이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가고 있으니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 통해 깨달음을 얻는 데 더 노력하자.”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6월 6일 봉은사 일요법회에서 봉은사 직영전환과 관련해 총무원 측과 협의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이날 스님의 발언은 지난 주 조계종 총무원장 영담 스님이 전화 인터뷰에서 밝힌 데 이어 총무원과 봉은사간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 중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영담 스님은 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봉은사 직영전환 사항 등 무리한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다. 물밑 접촉이 진행 중인 만큼 협의의 추이를 지켜보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명진 스님은 법회에서 “봉은사 직영전환 문제와 관련해 양 측이 어느 선에서 합의점을 찾고 있다”면서

“자비심과 적당히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 아무리 내가 옳아도 상대방 자존심을 고려해 100%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것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그동안 봉은사 직영전환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던 자신에 대해 “총무원이 결정한 직영이 잘못됐으니 이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지남 3개월 여였다면 이제는 따뜻한 마음으로 (총무원 측을) 이해하고 대화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종단 중진인 모 스님이 봉은사를 수차례 출입한 사실은 있다. 당시 봉은사 측이 제한된 안은 총무원으로서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면서 “화쟁위원회에서 9일 종단 내 안건으로 봉은사 사태를 정해 해법을 찾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조종섭 기자

“조계종 수도권 포교 실패했다”

원담 스님 토로

6·2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조계종단의 수도권 포교는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기획실장 원담 스님은 6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1차 조계종 직할교구 상임위원회에서 “6·2 지방선거 불차당선자는 150여 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5% 미만이다. 특히 서울지역 당선자가 제일 적다”고 말했다.

이러 스님은 “조계종단이 수도권 포교에 실패한 것은 직할교구 내에 공할보다 사찰사안이 많은 등 조직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많은 정치인이 교회·성당의 표를 의식해 개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원담 스님은 “개인적 신앙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 때문에 불교를 떠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면서 “종단이 추진중인 사찰부동산관리법이 2011년 시행되면 새 종교부처를 불허받아 수도권 포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종섭 기자



천태종, 상월조사 제36주기 추모대제 봉행 한국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 조사의 제36주기 열반대제가 6월 9일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대조사전에서 봉행됐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추모사에서 “상월원각 조사는 ‘상자 월자(上月) 법명과 ‘원자 각자(圓覺) 법호처럼 우리 중생에게 어두운 밤길의 밝은 달빛이었고 그 빛은 언제나 두루 차별이 없이 원만했다’고 회고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지성 정사, 총회총 총무원장 남경 스님, 의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이사스님, 이재오 국가인권위원장, 정우택 충북도지사, 이시중 충북도지사 당선자, 조창희 문화체육관광부 총무실장, 김동성 단양군수 등 2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목동국제선센터

비전 전략 토론회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현조)는 6월 10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국제선센터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주제발표 ‘목동 국제선센터의 비전과 전략수립 방안 연구’를 통해 국제선센터의 국제적 이미지를 활용해 수행프로그램 개발, 교육사업으로서의 기능 강화, 일요법회 및 외국어 법회 시행 등을 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조종섭 기자

원용 화합하는 팔공산문, 새로운 팔공산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제26대 性門宗師住持晉山式

소중한 인연을 모십니다

산색이 짙고 녹음이 푸르른 계절에 약사여래의 가피가 충만한 팔공산 동화사에서 종단의 대덕 큰스님과 내외 귀빈을 모시고 삼호 성문 종사의 주지 진산식을 봉행합니다. 그 첫 걸음을 내딛는 자리에 함께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9교구 본사 동화사 제26대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회 합장

www.donghwasa.net

- 일 시 | 불기2554(2010)년 6월 26일 오전 11시
- 장 소 | 동화사 봉서루 앞 특설무대
- 문 의 | 종무소 (053) 985-4404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桐華寺